

14대 회장 이임사

존경하는 한국로봇학회 전임 회장님, 임원과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해온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서 로봇 분야가 그 어느 해보다 주목을 받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껏 높아진 한국로봇학회의 위상에 걸 맞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저는 지난 1년간 한국로봇학회장으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고 그만큼 학회가 성장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2월 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한 국내로봇종합학술대회는 등록자 수 500명을 넘기는 개가를 올렸고, 급하게 장소를 변경해서 6월 제주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URAI2017도 중국 이외에 국외 참가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400여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2년차를 맞이한 인공지능 및 로봇학 여름학교는 1주일에서 3일로 기간을 줄인 가운데 9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속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초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연구회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보행조작기술연구회, 재활로봇연구회, 로봇윤리연구회, 소셜로봇연구회, 재난·안전로봇 연구회 등 5개 연구회가 신설되었고, 신설 연구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모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매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World Robot Conference에 정식 스폰서 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사패를 전달받았고, 지난 iREX와 더불어 열린 한중일 워크샵에서는 한국로봇학회장으로 제가 한국 수석대표로서 Opening Address를 하고 기념 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6월에는 정부 주무부처에서의 요구에 따라 차기 수석부회장의 총회 선출과 이사 수의 30명 수준 축소를 골자로 하는 학회정관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사 분들이 정예화되고 내년 총회부터는 회원 여러분들이 수석부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막중한 회장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옆에서 도와주신 최혁렬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과 이사님들, 특히 누구보다도 적

극적으로 학회 활동에 임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학회 사무국에서 산적한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고 재치발랄하게 처리해주신 윤미라, 최기련 사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황금개띠 무술년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들 가내 평안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행운이 함께하여 뜻대로 술술 잘 풀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제14대 회장 조영조 드림

